

더 길고 더 넓게… 車 ‘대형화·고급화·전동화’ 트렌드 뚜렷

글로벌 완성차업계 크기 경쟁 치열
현대차 역사상 가장 큰 그랜저 출시
한국지엠 차체 5352mm 타호 출시
볼보 전장 5037mm ‘EX90’ 선봬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내연기관은 물론 전기차 시장에서도 크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시장이 일명 ‘페밀리카’로 불리는 대형 SUV 세그먼트 뿐만 아니라 세단 시장에서도 대형화·고급화·전동화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출시한 준대형 세단 7세대 그랜저는 새로운 플랫폼 적용해 차 길이가 5035mm에 달한다. 현대차그룹 내 동급 모델 중 처음으로 5m를 넘긴 기아 K8보다 크다. 그랜저 역사상 가장 큰 그랜저로 기록됐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세단 중에도 길이 5m를 넘기는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다. 메르세데스-벤츠 E 클래스와 BMW 5시리즈가 각각 4940mm, 4965mm로 그랜저의 이전 모델보다도 길이가 짧다.

한국지엠 쉐보레가 올해 4월 국내 출시한 대형 SUV 타호는 압도적인 크기와 견인력 등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타호는 차체 길이 5352mm, 폭 2057mm, 높이 1925mm의 엄청난 크기에 22인치에 달하는 크롬 실버 프리미엄 페인티드 휠을 장착했다. 이같은 변화는 자동차 시장의 고급화·대형화 추세에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기아 EV9 콘셉트카



볼보 EX90.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동화 모델로 넘어가면서 크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내년부터 전동화 전략에 대형 전기 SUV를 추가할 예정이다. 우선 기아는 내년 상반기 대형 전기 SUV EV9을 선보인다. EV9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하는 기아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처음

내놓는 대형 전기 SUV이기도 하다. 콘셉트 모델 기준 차체 크기는 전장 4930mm, 전폭 2055mm, 전고 1790mm, 축거 3100mm 수준이다. 기아의 내연기관 SUV인 모하비와 비교하면 전장은 동일하고, 전폭은 EV9이 135mm 더 넓다. 축거도 EV9이 모하비보다 205mm 더 길다. 전기차의 장점인 넓은 실내 공간을 경쟁력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수입차 업체들도 대형 전기 SUV 출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BMW는 프리미엄 대형 전기 SUV ‘iX’를, 포드는 전기 픽업트럭 ‘F-150’을 출시했다. 최근에는 메르세데스-벤츠가 플래그십 모델인 ‘EQS SUV’를 공개했다. 제너럴 모터스(GM)는 최근 대형 전기 픽업트럭인 ‘GMC

시에라 EV’를, 폴스타는 첫 전기 SUV ‘폴스타3’를 선보였다.

지난 10일 볼보가 공개한 플래그십 전기 SUV EX90은 전장 5037mm, 전폭 2039mm, 전고 1747mm, 휠베이스 2984mm의 크기를 자랑한다. 특히 이 차량은 실내 레이아웃 기능을 세계 최초로 탑재해 운전자 부주의로 실내에 탑승자가 남겨져 발생하는 사망 사고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의 고급화와 대형화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 시켜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기술 개발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서 프리미엄급 차종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디올 뉴 그랜저 /현대차

원달러 환율 수직낙하… 안정세 전망 ‘속속’ 깊어지는 제로코로나 늘… 생산·소비 ↓

일주일 사이 100원 이상 하락
“1310~1345원 내 등락 가능성 커”

원·달러 환율이 연말 1500원대로 진입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례적인 급락(원화값 급등)으로 1300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에선 아직 추세적인 하락은 시기상조지만 안정세를 앞두고 있다는 의견이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일주일 전 1419.20원(4일 종가)을 기록하던 원·달러 환율은 일주일사이 100원이 넘게 떨어졌다. 지난 11일에는 하루사이 59.10원떨어지기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11월 6일(46.8원) 급등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일일 변동폭을 기록했다.

환율이 급락한 것은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지났다는 인식 때문이다.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7.7% 올라 시장 예상치(7.9%)를 크게 밟았다.

연준이 예의주시하는 핵심 CPI가 전년 대비 6.3% 상승에 그치며 4분기 들어 핵심물가 상승률 둔화가 확인된 것 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물가 정점 기대가 가시화되며 전 세계적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조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물가가 고점을 통과했다는 기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1325.9원)보다 8.3원 하락한 1317.6원에 마감한 1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대와 함께 강달러 기조가 다소 누그러들었다는 점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또한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 것도 달러약세에 힘을 보탰다. 미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재정지출 확대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돼 통화긴축 흐름도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연스럽게 ‘킹 달러’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하락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원화 약세가 달러 초강세에 편승한 것이었던 만큼 지난 3일 이후 달러화 되돌림 이상의 원화 강세는 솟커버 등에 의한 언더슈팅 국면으로 판단한다”면서 “원화는 단기간 내 1310~1345원 범위 내 등락 가능성 커 보인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아직 완전히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이른 감이 있으나 그동안 환율상승속도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며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나 기준금리 인상도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환율이 오른다 해도 전고점 보다는 낮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이나 뉴스 & 리포트

10월 소매판매 증가율 마이너스 기록

지난달 중국의 소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봉쇄 지역이 늘면서다. 회복세를 보이던 산업생산도 꺾였고, 두 자릿수의 청년 실업률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 전월 2.5% 증가에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시장 예상치인 1.8%에도 크게 못 미쳤다.

월별 소매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5월(-6.7%) 이후 다섯달 만이다.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봉쇄 여파가 4월(-11.1%)을 바닥으로 점차 개선됐지만 9월 2%대로 내려오더니 지난달에는 결국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식품 소비가 8% 이상 줄면서 전체 소매판매 증가율을 끌어 내렸다.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코로나19 재확산 도시의 수가 오미크론 파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수준으로 늘면서 소매 판매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11월 실물지표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 냉각과 부동산 침체로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전망은 어두운 상태”라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AP·뉴시스

10월 산업생산도 5% 증가에 그쳤다. 국내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데다 글로벌 수요가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산업생산은 지난 4월 -2.9%를 저점으로 5월(0.7%), 6월(3.9%), 7월(3.8%), 8월(4.2%), 9월(6.3%) 등 뚜렷하게 개선됐지만 봉쇄 등 ‘제로 코로나’의 장벽에 막히고 말았다.

고정자산 투자액은 지난달 5.8% 증가했다. 제조업 중심인 2차 산업 투자액이 10.8% 늘었으며,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8.7% 증가했다.

전체 실업률은 5.5%로 9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16~24세 청년 실업률 역시 17.9%로 높은 수치를 이어갔다.

실물지표가 악화되면서 중국이 당초 올해 성장을 목표로 제시한 ‘5.5% 안팎’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중국의 올해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분기 0.4%, 3분기 3.9%로 목표치를 크게 하회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